

땅

기 때문이다. 앞서 논의 했지만 미시적 1그램의 흙이 속에 있는 금강경에나 나뭇잎의 10억 미생물의 우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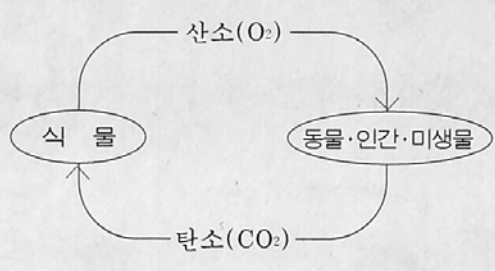
미생물·동식물 인간과 공생관계 유지 먹이연쇄·호흡작용 통해 영양소 서로 교환

한줌의 흙, 1그램의 미시적 땅의 세계는 정태적인 세계가 아니라 거시적 땅의 세계로서의 우리 자신의 생활공간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역동적인 변화의 세계이다. 이러한 땅의 세계는 열린 체계로서의 비평형계로서 다른 땅, 물, 불, 바람, 생명의 세계를 내부적으로 수반하며 다층적으로 연쇄작용하고 외부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끊임이 변화해 간다. 이것이 바로 미시계와 거시계의 공진화현상이며, 화염철학의 일미존함시상(一微塵中含十方)의 세계이다. 이러한 현상이 가능한 것은 국소적으로 닫혀진 미시계(一微塵)와 개방적인 거시계(舍十方)사이의 에너지 교환과 물질교환이 자유롭게 가능하

진개되고 있다. 그 속에는 미생물들이 안식하는 휴양객의 집들이 있고, 물을 저장하고 양식을 보관하는 통과광이 있고, 생활과정에서 생겨나는 가스는 흙페달산 사이의 공간으로 방출되고, 그들사이로 흐르는 미세한 강과 호수사이로 오물의 배출로 삼는다. 또한 이러한 토양에 녹색의 엽록소를 가진 식물의 잔뿌리들이 내리면, 곰팡이와 세균들은 거

이러한 땅위의 식물에 지상의 모든 동물과 인간이 의존하여 생존을 영위한다. 식물과 동물및 인간은 마치 토양속에서 식물의 잔뿌리와 세균, 곰팡이가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밀접한 상호의존적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다. 녹색의 엽록소를 가진 식물들은 태양빛에서부터 오고 빛에너지(光)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한다. 물(H₂O)과 공기중의 탄소(CO₂)를

햇빛의 힘으로 당분과 산소로 바꾸는 작용을 하는데, 이 광합성이야말로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살 수 있는 중요한 전제조건을 이룬다. 물론 이러한 거시적 광합성이 원활히 일어나려면 미시적 토양의 세계에서 땅, 물, 불, 바람과 식물미생물군의 도움이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식물의 유기체적 생산활동에 동물은 의존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시



키며, 동물이면 식물이면 생명이 다 했을 때에는 땅과 대기중의 세균, 곰팡이들에 의해 먹이가 되고 분해되어 환원되어 땅, 물, 불, 바람의 세계로 돌아간다. 이들은 또한 살아 있을 때에는 호흡작용을 통해 서로가 필요한 산소와 탄산가스를 교환해서 긴밀한 유대속에 살아간다. 우리 인간도 역시 식물이 광합성으로 방출하는 산소가 없다면 지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으며, 우리는 호흡을 통해 탄산가스를 식물의 광합성이 공급한다. 이와같이 거시적 땅의 세계는 미시적인 땅, 물, 불, 바람 생명현상의 상호공존, 먹이연쇄, 호흡작용을 통해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긴밀하게 연관되어 상호작용하는 환경 구조인 것이다.

'95 신행 캠페인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2월과 3월에 걸쳐 졸업·입학의 기쁨을 안는 손자 손녀 3명이 있는 김경환가사(65)는 손자·손녀들에게 줄 선물을 꼼꼼히 생각해 본 결과 불교서적으로 결정했다.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큰 손자에게는 「깨침의 말씀 깨침의 마음」과 「인도기행」,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손녀에게는 역사책 읽기를 즐겨 하는 성향을 고려해 「역사로 읽는 일화」와 「삼국유사」, 국민학교를 졸업하는 외 손주에게는 민화 「부처님이 좋아요」와 「불타 석가모니」를 주려고 미리 사두었

우리 불교계에는 옛부터 회갑 결혼 생일 아귀들 49재 등 특별한 날을 기리는 선물로써 경전등의 법보시를 많이 행해왔다. 책은 한번 보고 버리는 1회용품이 아니다. 대를 이어, 또는 여러 사람이 돌려볼 수 있다. 책선물은 누구에게도 풍지만 특히 감수성이 민감한 청소년기에 받는 책선물은 그의 인생 진로나 가치관까지 바꾸어 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적은 비용으로 의미있는 선물이 있어 「책」이상이 없는 것이 없다 하겠다.

금주의 주제
불서 선물

신행수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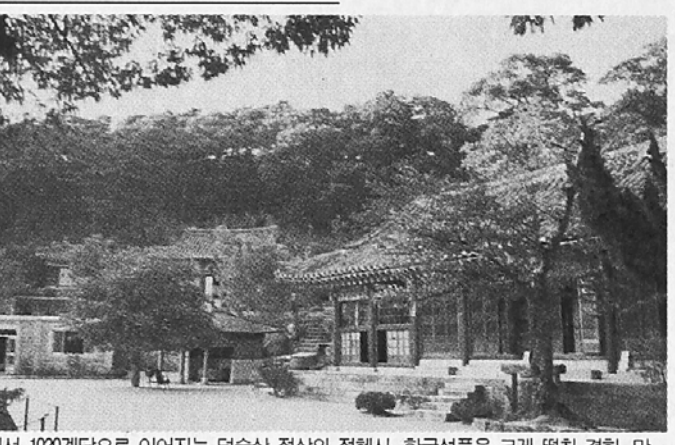
근세불교 산실을 찾아서
원광사, 덕숭산 순례

삼라만상이 불국토 아난국은 없지만 덕숭산은 근세 한국선종을 크게 떨친 경허, 만공선사의 발자취가 남아 있어 불자들에게 신심을 더욱 고무시키는 성지이기도 하다. 매달 정기적으로 불법이 살아 숨쉬는 사찰을 순례하며 신심을 함양하는 호국 원광사(주지 한상길)는 오는 24일 수선도량으로 유명한 덕숭산 수덕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이번 성지순례는 단층맛배 형식으로 치밀하게 건립된 국보 제49호인 대웅전 참배를 시작으로 청연당, 백연당 및 만공선사의 영정이 모셔진 진영각을 둘러 보게 된다. (02)796-0203

문화한 연꽃의 미소 담자 불교전통 꽃꽂이 강습

하늘에는 아름다운 새가 날고 연못에는 연꽃이 피며 나무에는 만다라꽃이 떨어지는 그야말로 보배로운 부처님의 나라를 상상해 보자.



◇수덕사에서 1020계단으로 이어지는 덕숭산 정상 정상의 정해사. 한국선종을 크게 떨친 경허, 만공선사의 발자취가 남아있다.

관음선장학회 회원들의 활동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추운겨울 불우이웃, 소년소녀가장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음재일을 맞아 부처님께 지심으로 귀명례하여 마음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산사에서 여명이 밝아오기 전 노스님과 동자님이 법당에 들어가 향을 꽂고 피우고 부처님께 차를 올리는 새벽예불의 묵타소리. 이를 일러 '향수해례와 사성례'라 하는데, 정성이 합쳐진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예불의식이다. (02)584-1108

책방 여시아문
737-0695

호흡법 인문 교리 등 공부

선학원 시민선방 개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으나 그 무엇으로도 매울 수 없는 정신적 갈증을 허덕이는 현대인들.

재단법인 선학원 중앙선원(원장 법진스님)은 직장인 및 일반 재가불자를 위하여 3월1일부터 4월말까지 사찰 시민선방을 개설한다.

정적이 흐르는 선방에서의 참선실수, 초발심자를 위한 예경법등 불교기초교리에 대한 강의 등이 자신을 수양하고 다지기 위해 모인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이다.

직장인도 좋고 주부들도 좋다. 한 번 호흡에 하나의 망념이 떨쳐지고 한 생각이 일체를 얻어 진정한 자아를 깨달을 때 삶의 행복은 바로 그곳에 있게된다. (02)732-3327

"신심·반야·대비등 보살4덕 배워요"

한국불교연구원 대승불교강좌

'위로는 무상보리를 구하고(上求菩提) 아래로는 중생을 이익케 하고 교화(下化衆生)해, 모든 바라밀의 행을 닦아서 미래에 불타의 깨달음을 열고자 서원한 이들을 일러 보살(菩薩)이라 한다.

이러한 보살행을 실천하고자 발원한 한국불교연구원 서울구도회(회장 김병철)는 20~25일 매일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까지 강남구 개포3동 연구원 법당에서 '보살의 사덕(四德)이란 주제로 제 101회 대승불교강좌를 마련한

다. 보살의 4덕이란 신심(信心)과 반야(般若), 삼매(三昧)와 대비(大悲)라는 네가지 덕목을 말하는 것으로서 불자들이 꼭 갖춰야 할 네가지 덕목을 말한다.

평소 여러가지 생활상의 여건으로 불교를 공부하기 어려웠던 불자들은 이 불교 기초강좌를 통해 대승불교의 보살사상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02)575-6167~8

용기 복돋는 보살행 50명 할머니 장학금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돈독한 신심으로 면학에 정진하는 학생들에게 매년 보시행하고 있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선행의 생활화를 꾸준히 펼쳐오고 있는 부산 관음선장학회(회장 정재선)는 오는 23일 부산불교신도회관에서 제7회 장학금 수여식을 갖는다.

학인스님 8명, 불우청소년 4명에게 수여되는 장학금은 회원 할머니 50여명이 한두푼씩을 모아 저축한 이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의미가 깊다.

마음어는 감로법문 광명선원 월운스님초청

은은한 묵타소리와 함께 울려오는 아침예불의 정아함은 심신의 찌든때를 맑게 해주는 청정음이다.

방배동 광명선원(주지 초격스님)에서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동국역경원장 월운스님을 초청하여 옛 산사의 맑은 향취를 만끽하는 감로의 법문을 청해듣는다.

'향수해례와 사성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법회는 관

부담적이고 큰 가르침 담겨 입학·졸업철 청소년가치관 형성에 큰 몫

다. 비싼 선물을 원하는 손자·손녀들이 다소 서운해 할지도 모르나 불교서적을 준비한 할아버지의 뜻을 간곡히 설명하며 줄 생각이다. 김경사는 지난 설날에도 세뱃돈 대신 도서상품권을 세 배운 손자·손녀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며칠전 회갑을 맞은 이화순보살(61)은 잔치를 여는 대신 「법화경」의 법보시를 절의 가까운 신도들과 친지 친척들에게 배려했다. 지난해 시내 B사에서 전통혼례로 결혼식을 거행한 민경수·김희영부부도 축하객들에게 답례품으로 「지장경」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요즘 졸업·입학철을 맞아 선물로 컴퓨터 패스북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이 많고 심지어는 해외여행 자동차를 사주는 통근(?) 부모들도 있다는 보도이다. 그러나 그러한 외형이 화려하고 비싸기만 한 선물보다는 한권의 불서 또는 불교신문·잡지를 1년동안 볼 수 있는 구독권 선물도 뜻 깊을 듯 싶다.

선물이란 주는 이의 따뜻하고 정성어린 마음이 담긴 것이 최상이다. 줄때 부담없고 받아서 의미있는 선물로 적은 금액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백 안겨줄 수 있는 불서 선물이야말로 최상의 선물이 아닐 수 없다.

깨달음의 사회화 성공 접수현황

▲부산 한마음선원	2백7십7만4천원
▲육천사	5십만원
▲청량사	3십만원
▲동대문 연화사	6십3천원
▲고운사	3백9십8천원
▲인천 사암연합회	1백만원
▲진관사	2백5십만원

(2월8일~15일)

*성금모금계좌번호
농협 053-01-22778(불교중앙교인)
국민은행 023-01-0533-563(불교중앙교인)

나와 이웃 그리고 자연은 하나

생활 속의 불교 17
협찬: (주)삼천리 도시가스

내 뜰 앞마당에 피어있는 매화

'옥에 흙이 묻어 길가에 버섯 드니 오는 이 가는 이 흙으로 아는고야'

옛 시조의 한 구절이다. 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잠든 친구의 옷깃에 보물을 감춰 놓고 길을 떠났다가 돌아와 보니 계우에 보배가 있는 줄 모르는 친구는 거지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다.

얼핏 생각하기엔 보배라면 온갖 노력 끝에, 산천 수전 다 겪어야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믿게 된다. 그러나 산 너머 매화 핀 곳을 찾아다니다 지쳐 돌아와보니 뜰 앞에 피어 있었다는 격으로 진짜 보배란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우리는 보배가 내 손 안에 있음을 알지 못한다. 법화경 궁자(窮子)의 비유에서처럼 보배 그득한 창고 열쇠를 손에 쥐어 주려는 제 아버지를 보고 '내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아들의 경우와 같이 우리는 무한량의 보배 창고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조차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고작 세간의 사소한 이익을 앞에 놓고 울고 웃는다.

이왕 이익을 추구할 바에는 모든 이익을 다 맡아버릴 단 하나의 이익, 모든 욕구를 다 태워버릴 단 하나의 욕구, 그러한 이익·욕구를 추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흙을 씻어내고 옷깃을 제쳐서 보배를 찾고, 아버지가 쥐어 주는 열쇠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무한량의 보배 그득한 창고를 열어젖혀야 할 것이다.

창고 열쇠는 불법 속에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는 거기에 열쇠가 있다.

협찬
(주)삼천리 도시가스
광명 제 4지역 관리소
대아공무(주) 광명지점
도시가스 설비 일체
대표 명을식

광명시 하안동 중심 상업지역 11-1
전화 809-6200-1, 807-8441 / 팩스 808-2277

불법의·생활의·연대의·세계화